

정보화 시대의 인문학*

—과학주의의 도전과 새로운 인문학의 가능성

박찬길

1. 서론: 정보화와 인문학의 위기

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왔던 구호가 경제 부흥과 민주화였다면, 1990년대를 거쳐 새 천년을 맞은 최근 10년 간의 사회 변화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집약된다. 한국 사회에서 세계화(Globalization)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적응이고, 이의 실패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최근의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아프게 실감했다. 그러한 세계화,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세계 질서의 확립을 전인하는 것은 IBM과 마이크로소프트로 상징되는 미국의 정보 통신 산업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 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단순히 한 나라의 산업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문화 부문을 포함한 사회 조직 전체, 나아가서는 현재 도달한 인류의 문명 전체를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켰다는 주장을 등장시켰고,¹⁾ 이것이 이른바 '정보화 Informatization'이며, 이것이

* 본 연구는 1998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 중점 영역 신규 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인문학 III-4).

실현된 새로운 사회를 정보 사회 Information Society라고 부른다.²⁾ 웹스터 Frank Webster의 요약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 사회는 기술적으로는 정보 통신 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정보의 처리·저장·전송의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 경제적으로는 정보가 부의 일차적인 창조자가 되는 것, 직업적으로는 정보 관련 산업 종사자가 여타 산업 분야의 종사자들보다 많은 것, 공간적으로는 정보 통신망의 연계에 의해 지리적 거리가 극복되는 것, 문화적으로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³⁾ 이러한 사회의 도래가 전례 없는 풍요와 행복을 가져올지 아니면 새로운 억압과 박탈을 의미할지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지는 '정보화'에 대한 실감은 실리를 비롯한 비관론자들의 말대로 사회적 감시의 심화와 소비자 자본주의의 강화 쪽에 가깝다.⁴⁾ 즉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경험되는 정보화의 실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질서 안에서 한층 더 강화된 자본주의적 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뜻하며, 경쟁력의 강화와 이윤의 극대화는 정보화를 표방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는 개혁의 원인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정보화는 인문학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도 급격하게 바꾸고 있으며, 인문학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발전적으로

1) 정보 사회를 인류 문명의 새로운 단계로 본 대표적 학자는 토플러 Alvin Toffler가 있는데, 그는 *Future Shock* (New York: Bantam, 1971)이나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1980)과 같은 유명한 저서들을 통해 과학 기술과 고도의 지식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명의 실현을 예언한 바 있다. 스톤이어 Stonier 같은 학자는 정보 사회의 출현을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과 맞먹는 서구 문명의 새로운 단계로 보았다. Tom Stonier, *The Wealth of Information* (London: Thames Methuen, 1983), p. 224.

2) 정보 사회에 대한 개념의 역사적 계보를 간단히 정리해놓은 것으로는 William J Martin,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Aldershot, England: Aslib Gower, 1995), pp. 1~16. 정보 사회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저서로는 Frank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1995)가 다니엘 벨, 앤소니 가든스로부터 하버마스, 그리고 보드리야르, 룬타르 등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정보 사회론을 비판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3) Webster, *ibid.*, pp. 6~25.

4) Webster, *ibid.*, p. 94.

수용하기보다는 위협으로 느끼고 이를 '인문학의 위기'라고 불려왔다.⁵⁾ 인문학 위기론은 사실상 정보화로 인해 새삼스럽게 불려일으켜진 논의는 아니지만, 정보화가 진척됨에 따라 인문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기의식이 한층 절박해진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인문학자들이 스스로 진단하는 인문학 위기의 원인은 다양하다. '인문학'의 본질상 근본적인 '위기'는 생길 수 없다는 입장에서부터,⁶⁾ 그 반대로 '의심의 해석학'으로서의 인문학의 이념에 그 위기의 기원이 내재되어 있다는 입장,⁷⁾ 자본주의의 세계 체제에서 원인을 찾는 입장,⁸⁾ 한국 인문학의 위기를 동양의 인문적 학풍에 대한 서구의 학문적 전통의 문화 식민지적 침략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⁹⁾ 등 다양하지만 이러한 문제 의식을 불려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인문학자들이 활동하는 대학의 인문학부가 전혀 없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생들은 인문학 관련 학과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대학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맞추어 대학의 조직을 개혁하려고 하며 이것은 곧 인문학 전공 교수의 직업적 불안정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인문학자들이 실감하는 위기는 그 본질과 원인이

5) 정확하게 정보 사회와 관련된 인문학 위기론은 우리 학계에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정보화 논의가 진전되면서 인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효용에 대한 반성은 한층 더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가 펴낸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5; 『1998 지식인 리포트』, 현대사상 특별 중간호, 민음사, 1998; 『현대 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 민속원, 1998; 조동일, 『인문 학문의 사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등이 있다. 최근의 인문학 위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로는 최종욱, 「인문과학 위기에 대한 담론 분석을 위한 시론」, 학술단체협의회, 『한국 인문사회 과학의 현재와 미래』, 푸른숲, 1998, pp. 327~56이 있다.

6) 남경희, 「인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인문학」, 『현대 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 민속원, 1998, p. 29.

7) 이성원, 「인문학의 특성, 인문학의 위기」, 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론』, pp. 1~8.

8) 백낙청, 「세계 시장의 논리와 인문 교육의 이념」, 소광희 외, 『현대의 학문 체제: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민음사, 1994, pp. 289~319.

9) 조동일, 앞의 글, pp. 209~27. 중국 인문학자들의 인문학 위기론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관점에 입각해 있다(『인문학의 위기: 인문의 새로운 길을 향한 중국 지식인의 성찰과 모색』, 백원담 편역, 푸른숲, 1999).

어디에 있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1990년에 이미 ‘문학의 죽음’을 선언했던 커넬 Alvin Kernan은 최근에 『인문학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는 책을 엮어내며 그 서문에서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미국의 인문학 역시 2차 세계 대전 이후 현저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¹⁰⁾ 수백 년의 인문학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쪽의 상황도 한국이나 미국과 다를 바 없는데, 영국의 영문학자가 솔직하게 토로하는 직업적 곤경은 정보화 사회에 인문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곤혹감을 대변해준다.

교수직은 르네상스 시대의 궁정인의 처지와 비슷하게 되었다. ‘직업의 안정성’이 없고, 자금도 별로 없고 그나마 가끔씩 주어지는 것도 일회성일 뿐이다. 대학 체제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인문학부도 이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자기의 영역을 정당화해야 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연구 과제를 수행하려면 전부 다 연구비를 신청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연구 성과 자체의 가치, 연구자와 연구자가 속한 과·학부·대학의 가치로 평가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인문학의 가치에 대한 일반 원칙들이 그대로 수용되고 그 연구자들이 그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인문학부 소속의 교수들이 숙련된 신청서 작성자로, 연구비 수혜 과제의 운영자로, 매끄러운 대외 관계 문헌의 생산자로 변한 것이야말로 1980년대의 인문학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다. 축소와 격변의 시기에 다가온 이러한 종류의 대학 개혁은 연구의 질과 연구자의 사기, 그리고 상상력 풍부한 정신과 미래 지향적 기획에 타격을 주었고, 이것은 개혁이 가져올지 모르는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인문학부는 완전히 점령당했다.¹¹⁾

10) Alvin Kernan, ed., *What's Happened To The Humani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p. 3~13.

11) Peter Denley, "The Computer Revolution and 'Redefining the Humanities,'" David S.

그런데 인문학자들이 느끼는 이러한 인문학의 위기가 그러한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논리에 의해 불가피하게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인문학이 진리의 탐구 수단으로서 다른 학문적 전통으로부터 받아온 도전이 단순히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가령, 17세기에 프란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이 『학문의 진보 *The Advancement of Learning*』에서 그리스의 형이상학 대신 자연철학을 모든 학문의 기본으로 설정한 이래 인문학은 자연과학으로부터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정보 사회에서 인문학이 받는 압력, 가령 인문학은 더 이상 삶을 위한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이 이러한 자연과학의 전통적인 공격과 원리적으로 다른가? 또한 교육 수단으로서의 인문학의 논리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의 물리적 표현이자 전달 수단인 고전적 문헌의 교화력은 정보 사회의 소위 멀티미디어의 영향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위축되었는가? 이것은 정보 사회를 산업 사회와 전혀 다른 종류의 사회로 보느냐 아니면 그 연장으로 보느냐의 논쟁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만일 정보 사회를 전혀 다른 종류의 사회로 파악할 경우에는 오늘날 인문학이 직면한 도전을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원칙에 입각한 근본적인 위기로 파악할 소지가 더 크다. 가령, 정보화 사회는 산업 사회의 문화적 기반이었던 구텐베르크의 활자 문명에서 벗어나 하이퍼텍스트에 입각한 사이버 문화로 진전되었으며 인문학은 인쇄된 활자가 체현하고 있는 고정된 진리에 입각해 있으므로 유동성과 개방성을 그 본질로 하는 하이퍼텍스트가 활자를 대치한 정보 시대에는 종래의 인문학이 진리의 탐구 수단이나 인성의 형성 수단으로서 원천적으로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 이 경우 인문학은 '진정한 학문은 스스로를 정당화한다'는 식의

Miall, ed., *Humanities and The Computer: New Directions* (Oxford: Clarendon Press, 1990), pp. 13~26.

12) 구텐베르크 문명의 종언을 주장하는 스펀 버커츠는 이렇게 주장한다: "변화는 다가왔다.

고답적인 태도를 포기하고 정보화 사회의 구조 조정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현재의 정보 사회는 후기 산업 사회의 한 변형으로서 정보화의 과정을 여전히 거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으로 파악한다면, 인문학에 대한 작금의 위협을 과학주의자들의 공리주의적 비판의 한 형태로 규정할 수 있고, 인문학은 진리의 담지자로서의 스스로의 위상이나 인성의 형성 수단으로서의 말과 글의 효능에 대하여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대신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그 전통적인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면 될 것이다. 정보화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현상이고 그 본질을 현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보화가 설령 비문자적 매체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범주의 문화를 일반화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활자 문화에 입각한 인문적 지식과 그에 입각한 교육의 가치를 완전히 소멸시킨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한국의 인문학 위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최종옥 교수의 지적대로 최근의 인문학 위기론은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인문학이 실제로 당면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근본적 속성을 너무나 과장하여 실용적인 대처 방안의 수립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¹³⁾ 1960년대 중반에 이미 인문학 위기론을 책으로 펴낸 플럼 J. H. Plum은 고도화된 산업 사회로부터 변화의 압력에 직면한 인문학자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권고한 바 있다.

과학적이고 산업적인 사회들의 등장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충격과 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인쇄된 글은 자의에서든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든 우리에게 과거 지사가 된 흔적만 남은 질서의 일부일 뿐이다. 나는 단지 변심한 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전환은 우리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인쇄된 페이지의 모형과 버릇에서 벗어나 전자적 통신에 의존하는 특징을 가진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전환이다" (Sven Birkerts, *The Gutenberg Elegies: the Fate of Reading in an Electronic Age*, New York: Ballantine Books, 1994, p. 118).

13) 학술단체협의회,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현재와 미래』, pp. 354~56.

불어 사회를 이끌어가거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자신감을 산산조각내버렸다. 자신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확신을 잃은 인문학의 수행자들은 절박한 나머지 두 가지 방식으로 도피해버렸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적 방식을 맹목적으로 고수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기능이 과거와 같으며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만 한다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으로 믿는 척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세계로 칩거하여 그들의 주제에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문학자들은 이제 그들의 존재를 위협받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은 현재 견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바꾸어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의 요구에 스스로를 적응시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다.¹⁴⁾

플럼이 지적하는 인문학자들의 위선적 태도는 실제로 인문학의 성향을 더욱 비실용적으로, 더욱 반사회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¹⁵⁾ 그 본질이 무엇이든 정보 사회로의 진전이 현단계에서 불가피하고, 그러한 변화의 와중에 경험하는 인문학의 위기가 실제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 보다 필요한 일은 인문학의 위기를 하나의 초월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무책임한 비관론에 안주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그

14) J. H. Plum, *Crisis in the Humanities* (Harmondsworth: Penguin, 1964), pp. 7~8.

15) 보턴 Alan de Botton은 최근에 발표한 에세이에서 최근의 인문학은 앨런 소칼의 '지적 사기' 스캔들(물리학자 소칼이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전문적 지식 없이 본래의 맥락과는 무관하게 과학적 용어를 남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난해성을 가장하여 순진한 독자들을 속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그들의 방식으로 과학 용어들을 적당히 조작하여 유명한 인문학 학회지에 게재한 후 이를 폭로한 사건)에서 드러나듯 모호성과 비실용성을 의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인문학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기능과 실천적 성격, 즉 몽테뉴나 니체가 가지고 있었던 '삶에 봉사하는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의 이상에서 멀어져가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What is academia for?" *Prospect*, 5, 1999. 소칼 스캔들에 관해서는 앨런 소칼, 장 브리크몽, 『지적 사기: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과학을 어떻게 남용했는가』, 이희재 역, 민음사, 1998 참조.

의미를 정보 사회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문학의 이념과 가치를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정보 사회의 논리와 견주어 재검토하고, 인문학이 과학주의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를 간략하게 개관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서 인문학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보다 실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2. 전통 인문학의 이념과 정보 사회의 논리

인문학 the Humanities에 대한 현재적 이념의 기원 중 가장 오래 것은 그리스어 'paideia' (교육 혹은 학습)로서 그 목적은 기원전 5세기 중반의 소피스트들이 젊은이들을 도시 국가의 건전한 시민으로 키워내는 것이었다.¹⁶⁾ 여기에는 체조 · 문법 · 수사학 · 음악 · 수학 · 지리학 · 자연철학 · 철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말에 상응하는 라틴어는 'humanitas' (인간의 본성)로서 기원전 55년 키케로가 쓴 『웅변가에 관하여 De Oratore』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쓰였으며 웅변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뜻하는 말이었다. 이때의 웅변가는 단지 웅변을 위한 언어적 기술만을 습득한 자가 아니라 실천적 지성을 갖춘 일종의 종합적 지식인 겸 철학자였다.

꼭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수다스런 바보보다는 현명한 병어리를 택하겠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자를 원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박식한 웅변가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철학자라고 한다면 (철학자나 웅변가나 하는) 논쟁은

16) 서양 인문학의 기원과 그 이념에 관해서는 R. S. Crane, *The Idea of the Humanities and Other Essays Critical and Historica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에 주로 의존했다. 조금 더 최근의 논의로는 Otto A. Bird, *Cultures in Conflict: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the Humanitie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6) 참조.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반대로 철학자와 웅변가를 구분한다면 철학자는 웅변가보다 열등하다. 왜냐하면 완벽한 웅변가는 철학자의 모든 학문을 갖추고 있지만, 철학자들은 그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언변을 가지지 못했고, 그들이 그런 능력을 아무리 무시한다 해도 그들의 지식에 그것을 보태야만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⁷⁾

버드의 설명에 의하면 키케로는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철학적 사고가 사회적 현실로부터 유리되고 감성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그 실용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면서 그러한 철학에 언어적 표현력을 결합시킴으로써 종합적이고 실천적 지성을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 인간성의 소유자들은 공무를 담당할 위원회에서 활약할 권위 있는 인물, 정부의 지도자, 원로원뿐만 아니라 대중 집회, 공공 행사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사고와 언변을 통달한 인물들로서 폴리스의 정치와 법을 이끌어갈 시민적 지도자였다. 문제는 그가 웅변술이라는 언어적 표현력에 의해서만 철학의 실용성과 지성의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키케로가 언어의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특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본질, 즉 ‘후마니타스 Humanitas’의 핵심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¹⁸⁾ 키케로나 비슷한 주장을 한 퀸틸리안 Quintilian에게 있어서 웅변술이라는 언어적 표현력은 교육의 목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마니타스’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에게는 외국어이자 고전어인 그리스어야말로 과거의 찬란한 그리스 문화를 체화하고 있는 유식한 언어로서 그들이 교육하고자 하는 ‘후마니타스’의 이상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어를 익히는 언어적 훈련은 단순히 기계적인 훈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상적 인간성 교육의 내용이었다.¹⁹⁾ 『브리태니커』 사전은 로마 시대 ‘후마니

17) Bird, *ibid.*, p. 14.

18) Bird, *ibid.*, pp. 11~16.

타스'의 이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후마니타스’는 모든 형태의 인간적 미덕을 최대한으로 함양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 용어는 그 현대어 표현인 인간성 Humanity과 연관되는 이해심·자비심·공감·동정 등뿐만 아니라 강인함·판단력·분별력·언변, 심지어 명예심과 같은 적극적인 특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후마니타스’의 소유자는 조용히 은둔한 철학자나 지식인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활동적인 삶에 참여하는 자였다. 지체 없는 행동이 맹목적이고 야만적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행동 없는 지체도 비생산적이고 불완전하다고 여겨졌다. ‘후마니타스’는 행동과 명상간의 적당한 균형을 요구했고, 그 균형은 타협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³⁰⁾

로마 시대에 확립된 인문학의 이념은 애초부터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성의 양성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성은 하나의 전문적 기량보다는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종합적 능력을 가장 잘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은 그리스어 고전을 통하여 말과 글을 익히는 것, 즉 현대적 의미의 문학적 훈련을 받는 것이었다. 인문학의 효용에 대한 후대의 논란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의 인문학이 이상적인 시민의 양성이라는 실천적 목적에 봉사하면서 동시에 그리스 고전을 통한 말과 글의 훈련을 그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로마의 인문학, ‘후마니타스’는 보편적인 진리의 체현으로서의 그리스어에 대한 믿음, 즉 그리스어가 보편 타당한 지식을 그 자체로 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연마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식을 실천하게끔 유도하는 도덕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9) Crane, *ibid.*, pp. 3~15; Bird, *ibid.*, pp. 11~24.

20) www.britannica.com/bcom/eb/article/4/0/5716,109244+2,00.html.

정보 사회에 이러한 ‘후마니타스’의 이상이 여전히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존립 가능한 것인지를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묻는 것은 그 자체로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이상에 내재된 몇 가지 전제들을 정보 사회의 논리에 비추어 몇 가지 예비적인 논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가령, 보편 타당한 진리의 보고로서 그리스 문화가 가진 가치, 그리고 그에 입각하여 구성한 이상적 인간성은 현대의 정보 사회에서는 당연히 통용되기 어렵다.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믿음은 19세기 이래 해체된 지 오래되었고, 특히 1970년대 이후 후기 구조주의의 데카르트적 인식 주체에 대한 공격은 그 윤리적 의미는 차치하고라도 일정한 인간성을 확정짓는 일마저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외에도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의 백인 남성 중심적인 인간 이해에 대한 공격도 그리스적 의미의 인간 교육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언어를 인간의 고유한 사고력의 매체로서 가장 인간적 특성으로 파악하고, 언어적 훈련이 인간성의 함양이고 실현이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도 그 유효성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정보 사회에서 사고의 기본적인 매체로서 언어가 갖는 효용은 어디까지나 그 기능적 성격에 국한되며 가독력 literacy이란 보다 높은 종류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보 처리 능력의 한 종류로 간주된다. 그러한 면에서 언어적 능력은 컴퓨터 언어에 대한 컴퓨터 가독력 computer literacy과 범주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인간의 가독력과 컴퓨터 가독력을 동일한 차원에서 취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과 글을 인간성의 고유한 표현으로 보는 전통적 인문학의 전제를 위협하는 것이다.²¹⁾ 게다가 이러한 인간적 특성의 구현으로서 언어에 대한 로마 인문학의 민

21) 컴퓨터 시대의 가독력과 관련된 논의는 Cynthia L. Selfe & Susan Hilligoss, *Literacy and Computers: The Complications of Teaching and Learning with Technology* (New York: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94), 특히 William Costanzo, "Reading, Writing, and Thinking in an Age of Electronic Literacy," pp. 11~21 참조. 이 문제에 관한 좀더 최근의 자료로는 Todd Taylor and Irene Ward, eds., *Literacy Theory in the Age of Interne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참조.

음이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화력——이것은 그리스 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과 그것의 구현으로서의 언어 자체가 가진 교화적 기능에 대한 믿음이 합쳐진 것인데——에까지 이르면, 오늘날의 정보 사회와의 공존 가능성은 더욱더 줄어든다. 이것은 그리스어의 강독이 가져다줄 수 있는 ‘지식’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러한 ‘지식’은 가령 자연철학이 가져다주는 자연에 대한 사실적 지식과는 전혀 다른 도덕적 권위를 가지며, 이것은 이 당시 인문학에는 ‘지식’ 공간 안에 엄격한 도덕적 위계 질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정보 사회에서는 ‘지식’을 다소 복잡한 형태의 ‘정보’로 격하하거나 거의 구별 없이 사용함으로써²²⁾ 인문학적 ‘지식’의 도덕적 권위를 원천적으로 부인한다. 사실상 정보 사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미국의 문화 제국주의적 패권에도 불구하고 정보 사회의 반권위적·우상 파괴적 경향을 주장하는 근거는 가치 지향적이고, 독점적이고, 위계적인 인문학적 지식을 대신하는 가치 중립적이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정보’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다.²³⁾ 후기 구조주의 이론가인 룬타르Jean-Francois Lyotard는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오로지 ‘수행적 원칙 the principle of performativity’과 그 상품적 가치에 의해서만 생산되고 평가받으며 이러한 원칙은 인문주의자들의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서의 지식에 대한 신념을 여지없이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보 사회에서도 로마인 문학의 이념들이 완전히 유효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보 사회의 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아무리 인간의 사고력을 ‘모방simulate’한다고 해도 로

22) 임일환, 「정보, 지식, 인지 개념」, 철학연구회 편, 『정보 사회의 철학적 진단』, 철학과 현실사, 1999, p. 8.

23) 소위 사이버 자유주의 Cyberlibertarianism의 대표적 문헌으로는 Esther Dyson, George Gilder, George Keyworth, and Alvin Toffler, "Cyberspace and the American Dream: A Magna Carta for the Knowledge Age," Release 1.2, Progress and Freedom Foundation, Washington, D. C., August 22, 1994. <http://www.twonbball.com/pff/position.html>.

24) Webster, *ibid.*, pp. 183~85.

마인 문학이 설정하는 인간의 종합적인 사고력을 대치할 수는 없고,²⁵⁾ 그것이 한 사회에서 가지는 실천적 의미는 정보 처리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정보는 단지 '존재' 할 뿐이기 때문이다.²⁶⁾ 오로지 상품적 가치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정보의 처리가 한 사회의 지적 하부 구조를 형성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로마인 문학의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지성의 인간적인 판단력과 지도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전통 인문학이 새로운 학문의 성격을 분명히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였다. '인간성의 연구'라는 뜻을 가진 'studia humanitatis'라는 말은 현대 인문학의 보다 직접적인 기원인데, 15세기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쓰인 이 말을 스콜라 철학이 아닌 세속적 학문을 일컫는 말로 쓰였고, 여기에는 문법·수사법·시·역사·도덕철학·고대 라틴어 및 그리스어 등이 포함되었다.²⁷⁾ 크레인에 의하면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은 대체로 키케로나 퀸틸리안과 같은 로마인들의 계승자이지만, 동시에 성 어거스틴 St. Augustine과 같은 신학자의 후예이기도 해서 그리스 고전을 중시하되 가치 있는 지식과 이상적인 인간성의 바탕을 고대 그리스의 문화가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랑에서 구한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르다.

사랑은 우리가 창조된 원인이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함으로써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정말이지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뿐이다. 그 사랑은, 다시 말해 예수의

25) 인공 지능 기술의 한계에 대해서는 권기현, 『정보 사회의 논리』, 나남, 1997, pp. 174~77 참조.

26) 정보의 탈의미론적 이해를 대표하는 스톨니어는 정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정보는 존재한다. 그 존재가 인식될 필요는 없다. 그 존재가 이해될 필요도 없다. 정보를 해석하는데 지능이 필요 없다. 정보가 존재하기 위한 의미를 가질 필요도 없다. 정보는 존재하는 것이다" (Webster, *ibid.*, p. 27에서 재인용).

27) Crane, *ibid.*, pp. 16~55.

사랑은 우리를 다시 불러들였고, 우리를 성장시켰다. 사랑에 의해서, 즉 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자 우리의 종착지로 되돌아간다. 왜냐하면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여러 개를 한 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앎이 사랑을 선행해야 한다. 신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가 그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난 후 앎의 힘과 습관을 획득한 다음에야 사랑을 실천한다.²⁸⁾

바이브즈 Juan Luis Vives에게도 여전히 고전을 읽는 일은 이상적인 인간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러한 교육과 학습의 목적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인한 앎이 인간을 동물적 본질로부터 끌어올려 신성 divine nature을 획득하게 하기 때문이다. 바이브즈에게 있어서 인간성의 실현은 인간의 신적 본질을 획득하는 것이며 인문적 교육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로마 인문학의 사회성과 실천성도 계승하되 그것은 시민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적 실천이 아니라 오만과 이기심, 헛된 호기심으로부터 해방되어 기독교 공동체의 참된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브즈 같은 대표적인 르네상스인에게 있어서는 로마인의 웅변술과 같은 언어적 표현력을 얻는 것보다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기독교적 미덕의 전제 조건이 되는 지식의 습득이 더 중요하지만, 글을 읽는 행위의 교화적 능력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문의 대상을 말과 사물로 나누어보았을 때, 인간적 본질을 최대한 구현하고,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는 데 사물보다는 말에 대한 학습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인문적 가치관은 르네상스 시대에도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적인 인간성의 내용이 도시 국가의 시민적 지도자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달라지긴 했지만, 최고의 고전으로서 하느

28) Crane, *ibid.*, pp. 32~33에서 재인용.

님의 말씀의 체현 *incarnation*이라고 할 수 있는 성서에 대한 종교적 숭배심은 종래의 고전적 문헌의 교화력에 대한 믿음을 일종의 종교적 경외심으로 강화시켰고, 이것은 결국 인문적 가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문학적 교육에 대한 신념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가령, 대표적인 기독교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당시의 대화적이고 논쟁적인 교육 방식에 반발하여 텍스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정하게 확립된 이론이나 해석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텍스트 자체가 가진 의미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받은 라틴어 교육이 철학과 형이상학의 논리적 해석에 의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키케로나 버질, 호레이스 같은 사람들의 문학적 교육의 우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젖먹이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세련된 화법을 배웠고, 나중에 차츰 대가들의 작품들에 소개되었다. 그러한 대가들의 작품들이 시·수사학·역사·고전과 같은 인문학 *liberal arts*뿐만 아니라 수학·지리학·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의 학습에 기초가 되었다.²⁹⁾

요컨대 에라스무스는 고전에 대한 일차적인 이해야말로 모든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철학 *the philosophy of Christ*을 익히는 것이 모든 학문의 최대의 목표였는데, 그것의 핵심은 논쟁이라기보다는 삶이고, 과학이기보다는 영감이며, 이성적 사고라기보다는 새로운 변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분석이 아니라 경건하고 열린 마음으로 성서와 같은 고전적 텍스트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해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전적 텍스트에 대한 이러한 직접적 경험은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만 배양되는 세

29) Crane, *ibid.*, p. 42에서 재인용.

련된 감성과 감식력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게 되며 이러한 '문학적' 지성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이상적 인간형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에라스무스 인문학의 이러한 문학주의적 편향은 문학 poetry를 인문학의 최고의 경지로 간주한 필립 시드니 Philip Sidney에게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러한 경향은 위즈워스 William Wordsworth나 셸리 Percy Bysshe Shelley와 같은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학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의 매튜 아놀드 Matthew Arnold 같은 사람의 인문주의적 문학론에 깊은 영향을 준다.³⁰⁾

이러한 문학적 교양이 정보 사회의 논리와 어느 만큼 공존할 수 있는가는 탈의미론적 성격의 정보가 갖는 반권위적 성격을 고려할 때 대단히 명백한 결론을 유도하는 듯하다. 르네상스의 문학적 인문주의가 전제로 하는 바, 고전에 통제되어 있는 문학적 지식은 정보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효한 지식으로서의 타당성조차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의 물질적 배경이었던 구텐베르크의 활자는 워드프로세서의 스크린상의 전자 활자로 변했고, 따라서 구텐베르크의 활자를 기반으로 하는 '인쇄된 책'의 문화는 끝나고, 전자 텍스트가 항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텍스트'의 문화가 시작됨으로써 기존의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떠받치던 물리적 조건이 사라졌으며, 한마디로 전통적인 문학은 '죽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³¹⁾ 그러나 전자 텍스트의 등장으로 책을 둘러싼 문화와 책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라는 견해는 하이퍼텍스트론자들 사이에서도 그리 흔하지 않다. 가령 『구텐베르크 애가 *The Gutenberg Elegies*』라는 저서로 책 문화의 종언을 주

30) Crane, *ibid.*, p. 45.

31) 정보 시대의 '책 문화'의 소멸에 관해서는 앞서 인용한 버커츠의 책말고도 Geoffrey Nurnberg, ed., *The Future of the Book*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참조. '문학의 죽음'에 관해서는 Alvin Kernan, *The Death of Literatu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참조. 하이퍼텍스트 이론에 관해서는 Paul Delany and George P. Landow, eds., *Hypermedia and Literary Studie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94)의 1장 "Hypertext, Hypermedia and Literary Studies: The State of the Art," pp. 3~50 참조.

장한 버커츠 자신도 「문학의 죽음」이라는 장에서 문학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라는 희망적 관측을 하고 있다.

나는 예술의, 특히 문학의 진정한 부흥의 가능성을 본다. [……] 왜냐하면 문학은 내면적 탐색과 관계 형성을 위한 어떤 것도 능가할 수 없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학의 모든 종류는—소설·시, 그리고 희곡—기본적으로 내용과 형식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진다. 언어의 구조는 그러한 지속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현재의 문화적 상황에서 읽기가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는 간단하게 기차를 갈아타서 한 종류의 시간에서 다른 종류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충분히 강한 욕구가 생기면 우리는 페이지에 찍힌 말 word을 찾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 작품은 다시 심오한 시간의 강력한 영역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갈 것이다. 독자들도 짐작하겠지만 나의 낙관론은 흔들리지 않는데, 책은 하나의 안식처로,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벗어나 그 주관성으로 인해 성스러워진 공간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우리에게 독립적인 개인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는 한, 문학은 그의 죽음에 대한 보도가 과장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³²⁾

3. 인문적 가치와 과학주의의 도전: 베이컨에서 소칼 사건까지

르네상스 인문학은 기독교적 편향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에서부터 견지해왔던 말과 글의 교화적 기능과 그 사회적 유용성을 의심받은 적이 없었다. 실천적 학문의 영역에서 인문학이 누려온 이러한 압도적인 지위에 처

32) Birkerts, *ibid.*, p. 197.

음으로 제동을 건 사람은 영국의 베이컨이었다. 베이컨은 1605년에 출판된 『학문의 진보 *The Advancement of Learning*』에서 학문의 영역을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으로 대별하고, 인간적인 학문은 다시 인간의 정신적 능력에 따라 ‘기억’에 의거한 역사, ‘상상력’에 의거한 시(문학), ‘이성’에 의거한 철학으로 나눈 뒤, 각각 철학·문학·역사의 순으로 그 위계를 설정했고, 이것은 ‘역사’나 ‘철학’에 견주어 ‘문학’을 최고의 지식으로 간주했던 시드니의 위계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문학’은 ‘허구의 역사 *feigned history*’에 불과했다.

문학 *poesy*은 운율을 가진 말에 대한 학문의 일부인데, 그것은 운율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한받지만 그외에는 다른 모든 면에서 극도로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상상력과 연관된다. 그것은 사물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 분리시킨 것과 마음대로 결합하고 자연이 결합시킨 것을 분리시킨다. 그리하여 사물을 이치에 맞지 않게 결합시키거나 분리시킨다. 그것은 말이나 사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우선 그것은 문체의 특성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말의 기술에 속하고, 현재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것은 두번째로 학문의 중요한 일부 중의 하나로서 운문이든 산문이든 상관없이 ‘허구의 역사’를 뜻한다. 이 허구의 역사의 용도는, 세상이 영혼보다 열등한 정도와 비례해서 사물의 본질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인간의 마음에 어떤 만족감과 유사한 것을 주는 것이었다. [……] 따라서 문학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신성함을 갖는다고 여겨져왔다. 왜냐하면 이성은 정신을 끌어내려 사물의 본질에 맞추는 반면 문학은 사물의 외양을 정신의 욕구에 맞추어줌으로써 정신을 일으켜세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문학은 음악과 조화롭게 잘 어울린다는 점과 더불어 인간의 본질과 즐거움에 조응하는 이러한 경향 때문에 다른 학문은 존재하지 않았던 미개한 시대에 야만적인 지역에서도 존재할 수 있었고 사랑받았다.³³⁾

베이컨은 문학의 실용적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물의 본질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정신의 욕구에 따라 사물의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정신을 일으켜세우는' 기능을 한다 할 지라도 문명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학문적 영역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야만의 시대에 속하는 저열한 정신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진리는 '말'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원칙이라는 과학주의적 사고 방식은 베이컨의 이러한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문학보다 상위에 있는 철학에 있어서도 베이컨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의 형이상학보다 '자연의 근본'과 관련된 철학을 한 엠페도클레스, 피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 같은 자연철학자들이나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의 과학을 더 높이 평가했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공통되는 원천'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³⁴⁾ 베이컨이 진리의 담지자로서 문학을 비롯한 인문학이 가져왔던 위상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이래 베이컨 당대에도 인문학의 비실용성을 지탄하는 주장이 줄이어 나왔다. 1649년에는 존 홀 John Hall이 하원에서 읽은 '검소한 동의안'에서 당대의 대학 교육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화학이나 기계적 실험, 과학적인 역사 연구를 도외시키고 여전히 언어 연구와 스콜라 철학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는가 하면 1654년에는 존 웹스터 John Webster가 「학문 세계의 점검 Examination of Academies」에서 당대의 대학이 "감각적이고 이성적이며 실험적인 원칙, 그리고 성서의 원칙에 입각한" "진정한 지식," 특히 현대의 자연과학을 도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17세기 과학 혁명은 진리 탐구의 수단으로서의 인문학의 위상을 돌이킬 수 없이 평가절하하면서 '말' 보다는 '사물'의 연구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기 시작했

33) Francis Bacon, *The Advancement of Learning* (London: J. M. Dent & Sons LTD., 1915), pp. 82~83.

34) Crane, *ibid.*, pp. 56~67; Bird, *ibid.*, pp. 44~49.

다.

그러나 베이컨이 이러한 주장을 하던 17세기의 인문학은 이러한 주장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을 만큼 학문적 권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말'의 연구에 대한 불신이 인문학에 대한 위협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제레미 벤담 Jeremy Bentham과 제임스 밀 James Mill 등의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이 산업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으로 자리잡으면서부터다. 하지만 공리주의가 하나의 지도적 이념으로 확립되었을 때에도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대학에서 인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시인 워즈워스는 여전히 시를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찬양하고 있었다.

과학자는 진리를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은인으로 생각한다. 그는 고독 속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마음속에 기린다. 그러나 시인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며 진리의 존재를 마치 눈에 보이는 친구나 매시간 함께하는 동료의 존재처럼 기뻐한다. 시는 모든 지식의 숨결이며, 모든 지식의 더 섬세한 영혼이다. 그것은 모든 과학의 얼굴에 나타나는 정열적인 표정이다.³⁵⁾

워즈워스의 이러한 주장을 이어받은 셸리는 베이컨의 문학에 대한 발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베이컨 경은 시인이었다. 그의 언어는 감미롭고 장엄한 울격을 가졌고, 그것은 그의 철학이 가진 거의 초인간적 지혜가 지성을 만족시키는 것만큼이나 감성을 만족시킨다. 그것은 듣는 이의 정신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종내에는 그것을 터뜨려버리는 노래다. 그의 언어는 그것이 언제나 교감하는 보

35) William Wordsworth & Samuel Taylor Coleridge, Michael Mason, eds., *Lyrical Ballads* (London: Longman, 1992), pp. 76~77.

편적 요소 속으로 스스로를 쏟아낸다. 혁명적 의견을 내는 사람은 언제나 발명가인 만큼이나 시인이기도 하다. [……] 그러나 그 주제의 형식이나 전개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형식의 운율을 채용한 그 위대한 시인들이 그러한 형식을 생략한 (베이컨 같은) 시인들보다 사물의 진리를 인식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덜한 것이 아니다. 셰익스피어나 단테, 밀턴과 같은 사람들은 (베이컨보다) 가장 뛰어난 힘을 가진 철학자이다.³⁶⁾

시인이 이런 주장을 개진하던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당시의 권위 있는 시사 잡지 『웨스터민스터 리뷰 *Westminster Review*』에 발표된 글에서 벤담을 추종하는 스미스 Thomas Southwood Smith라는 사람은 상인과 제조업자들과 같은 부르주아가 실제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현실인 이상 학문과 교육도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은 고전어는 현재 진행되는 이 세상의 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안중에 없다. 그것들은 사회에서 사람들의 대화에서 화제가 되지 못한다. 그것들은 시대 착오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어떤 문학 학위의 명칭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거주지나 이름과도 상관이 없다. 그것들은 인간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분야의 학문과 비교하더라도 그에 필적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못했다.³⁷⁾

크레인이 지적하듯 베이컨은 문학의 위상에 대하여 사뭇 경멸적인 태도로 공격을 가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인문학의 깊은 영향하에 있었고, 궁극적으로도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상호 보완적 공존을 전제로

36) Percy Bysshe Shelley, "A Defence of Poetry,"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6th edition, vol. II (New York: Norton, 1993), p. 757.

37) Crane, *ibid.*, p. 127에서 재인용.

하는 종합적 학문 체계를 꿈꾸었다.³⁸⁾ 그러나 19세기의 공리주의의 인문학 비판은 애당초 학문이나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물질적 실용성이라는 철저하게 공리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 모든 가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환산하는 공리주의의 단순한 환원주의는 인문적 가치 역시 기본적으로는 물질적인 가치인 '쾌락'의 단위의 집합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환산을 거부하는 인문학과 공존은 바라지도 가능하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정보 사회가 인문학에 가하는 압력도 인문학적 가치가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계량 가능한 양적 실용성이고 그런 면에서 이러한 공리주의적 비판과 동질적인 것이다. 다만, 인문학이 산출하는 지적 생산물의 상품적 가치가 정보 사회에서는 훨씬 커질 수 있고, 그 비중도 크다는 면에서 인문학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의 내적 기울에 대한 변화의 압력이 19세기보다 더 크고, 그것은 전통적 인문학의 관점에서는 인문학의 존립 근거를 보다 원천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보 시대의 인문학은 19세기처럼 소외될 자유도 없는 것이다.

19세기 초반부터 불붙은 이러한 논쟁은 19세기가 끝나가던 1880년대에 도 진화론을 지지하는 논쟁으로 '다윈의 개'라는 악명을 얻고 있었던 과학자 토머스 헉슬리 Thomas Huxley와 19세기 인문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매튜 아놀드 사이에도 유사한 형태로 반복된다. 헉슬리는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현대의 과학적 지식은) 어떤 권위나, 혹은 그것을 생각했거나 말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자연에만 의지한다. 그것은 또한 자연적 사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모두 어느 정도 불완전하거나 상징적이며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진리를 말에서가 아니라 사물에서 구하도록 요구한다는

38) Crane, *ibid.*, p. 64.

사실을 인정한다. 그것은 증거를 넘어서는 주장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는 점을 경고한다. 오늘날의 대표적 인문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순수하게 고전적인 교육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암시조차 주는 법이 없다. 그런 사람이 에라스무스보다 더 좋은 학자일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지적 혼란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에라스무스보다 더 잘 안다고 할 수 없다. 모든 면에서 존경할 만한 학식과 경건성을 갖춘 학자들은 그들의 중세적 사고 방식과 과학 사이의 반목하는 슬픈 현실에 대해 연설하는 친절을 우리에게 베풀지만 그들의 연설은 과학적 탐구의 기초적 원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과 과학자들이 참이라는 말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몰이해와 확립된 과학적 진리의 무게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낼 뿐이며 이것은 거의 회극적인 상황이다.³⁹⁾

다윈의 진화론으로 상징되는 19세기의 자연과학의 발전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발견하고 확립하는 과학적 지식은 인문학자들이 고전에서 발굴한 지식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라는 자신감을 굳혀가고 있었고, 이러한 자신감은 인문학적 지식의 유효성에 대한 믿음을 '범죄'라고 파악할 만큼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는 과학적 지식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서 아놀드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 시기에 오면 자연과학이 다루는 가치 중립적인 사실들은 오로지 도구적인 지식만을 구성할 뿐이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 관한 진정한 지식은 형이상학적 철학이나 문학에서만 가능하다는 전통적인 인문주의적 신념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된다. 아놀드조차도 인문학의 절대적 우월성보다는 차별적 유효성을 주장하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조화로운 공존을 주장한다.

39) Thomas Henry Huxley, "Science and Culture," *Norton Anthology*, p. 1449.

이러한 과학적 결과(다윈의 진화론)는 진정으로 흥미롭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은 그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지력과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성향에 의해, 자기들의 조상이 “꼬리와 뽕족한 귀, 그리고 아마도 나무에서 사는 습성을 가진 털복숭이 네 발 짐승”이라는 명제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러한 명제를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행동에 대한 감각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에 결부시키고자 하는 누를 수 없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바로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려고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다. [……] 헉슬리 교수는 오늘날 자연과학이 우리에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우주에 대한 개념은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생각들의 유효성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킨다고 말한다. 그것들이 치명적이라고 치자. 모든 곳에 그러한 새로운 개념들이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에 치명적 타격을 가한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하게 된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과 행동에 관한 우리의 본능과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연관시키기 위하여 진정한 의미의 인간적 학식 humane letters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다.⁴⁰⁾

아놀드는 자연과학적 지식의 유효성과 심지어 상대적 우월성조차도 인정하면서 인문학의 존속 근거를 ‘아름다움과 행동에 관한 우리의 본능,’ 즉 변하지 않는 인간성에서 찾고 있다. 과학적 지식이 아무리 참이라 해도 그것을 우리와 연관시키는 것은 여전히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이다. 아놀드에 오면 인문학의 자기 방어는 진리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서의 유효성이라기보다는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 본능의 충족이라는 소극

40) Matthew Arnold, “Literature and Science,” *Norton Anthology*, p. 1436.

적 목표로 향해지고, 자연과학과의 대등한 경쟁이 아니라 고유한 영역의 확보가 주된 관심사가 된다.

진리의 탐구가 주관적이고 가치가 개입되는 '말'에 입각해야 하느냐, 아니면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사물'에 입각해야 하느냐 하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자의 싸움은 20세기에도 계속되었다. 1959년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스노우 C. P. Snow는 인문주의자와 과학자들을 지배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화들' 사이의 매울 수 없는 괴리를 개탄하면서 문학적 지식인의 무지와 무사안일을 이렇게 비판한다.

그들은 여전히 전통적 문화가 '문화'의 전체인 양, 그리고 마치 자연 법칙 같은 것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자연 법칙을 탐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마치 아무런 흥미가 없다는 듯이 말이다. 마치 물질 세계의 과학적 체계가 그 지적인 깊이, 복잡성과 명확성에 있어서 인간 정신이 이룩한 가장 아름다우며 경탄할 만한 공동 작업의 소산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서도 대다수의 비과학자들은 그 체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 그들은 과학자를 무지한 전문가라면서 무시한다. 하지만 그들 자신의 무지와 특수성도 사람을 놀라게 한다. 나는 전통적 문화의 기준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과학자들의 무지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는 일에 상당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반응은 냉담했고 또 부정적이었다. 나는 "당신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은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맞먹는 과학의 질문을 던진 셈이었다.⁴¹⁾

스노우의 이러한 도발적 발언은 80여 년 전 헉슬리의 과학주의 문화론

41) 스노우, 오영환 역, 『두 문화 The Two Cultures』, 민음사, 1996, p. 27.

을 계승한 것이었고, 헉슬리의 도발적 주장이 아놀드의 반론을 유도했던 것처럼 스노우의 이러한 도전은 유명한 비평가 리비스 F. R. Leavis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의 논전은 이후 30여 년 간 과학주의와 인문주의간의 기나긴 논쟁의 시발점이 된다. 리비스는 스노우가 표방하는 '두 문화'의 조정자로서의 자격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설가를 자처하는 스노우의 문학 이해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거의 인신 공격에 가까운 정도로 강력한 어조로 비판한다. 스노우가 짐짓 공평무사한 태도로 '두 문화'의 격차를 걱정하지만 리비스가 보기에는 문학 이외의 어떠한 것에도 문화의 이름을 허락할 수 없는 것이며, 과학과 문학을 동등한 범주로 설정한 스노우의 입론 자체가 가당치 않음을 역설한다. 리비스의 문학 옹호는 그 강도로만 보면 거의 낭만주의 시대의 그것을 되찾았다고 할 만큼 완강한 것이었다.⁴²⁾ 리비스의 강력한 반발은 과학자이자 인기 소설가였던 스노우의 문학적 자질에 대한 공격 등 지나치게 개인적인 면에 치우쳐 다소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베이컨 이래 줄기차게 계속된 과학주의의 도전에 대한 인문주의 진영의 본격적인 반격으로는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자연과학의 발전은 이제 더 이상 인문학의 인정을 바라지 않아도 될 만큼 눈부신 것이었고, 스노우-리비스 논쟁 이래 인문학의 '과학화' 현상, 즉 인문학이 '말'과 '인간'을 다루면서도 자연과학 못지않은 객관성과 엄밀성을 가진 방법론에 입각해야 한다는 생각은 60년대 이후 문학의 경우 과도한 이론 지향성을 보이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마침내 최근에 벌어진 '소칼 사건'에 의해 분명해졌듯이 인문학 내부적으로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인문학의 '과학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연과학 진영으로부터 자신들의 '말'을 뜻도 모르고 도둑질한 '지적 사기꾼'이라는 조롱 섞인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인문학의 위기는 이렇듯 정보화의 경향에 의해 새삼스럽

42) 스노우-리비스 논쟁의 세부 사항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Bird, *ibid.*, pp. 114~16; 『두 문화』 우리말 번역판에 같이 실린 스테판 콜리니의 해설(pp. 121~88) 참조.

게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17세기 이래 자연과학이 학문적 주도권을 놓고 인문학과 벌여온 기나긴 싸움의 끝자락에 나타난 현상이다. 물론 정보화 혁명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의해 생겨난 위기의 새로운 국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공리주의적 사고의 물질적 구현이라고 할 만한 컴퓨터와 전세계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는 정보 통신의 연계망은 지식 사회의 하부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이제는 학문 활동의 기본 단위가 위계적 가치와 의미가 내포된 지식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기계적 표현인 정보로 변함에 따라서 소수 엘리트에 의한 독점적 지식의 체계를 대중에 의해 무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대체하게 되었고, 이것은 인문학의 고유한 사회적 기능인 이상적인 인간성의 형성이라는 본래의 사회적 기능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보의 탈문자성은 글에 대한 인문적 믿음(때로는 종교적 신념에 접근할 만큼 강력한)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이 구텐베르크 시대의 종언과 더불어 문학의 죽음을 인문학자 스스로 선포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정보화와 더불어 나타난 이러한 새로운 문제점들을 현단계에서 과장해서는 안 된다. 정보 사회가 기본적으로는 0/1의 전기적 신호인 비트bit로 환원되는 가치 중립적이고 평면적인 정보에 입각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활자 문화나 그 대표적 예인 인문적 지식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 멀티미디어에 의한 '책'의 추방이라는 문제도 그렇게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인문학의 효용이 여전할 것이라는 아놀드의 낙관론이 정보 사회에서도 여전히 통하는 측면이 있다. 인간의 고유한 정신 작용을 컴퓨터가 모두 '모방simulate' 할 수 있다는 기술 만능주의의 자만은 이론상의 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컴퓨터 과학자들에 의해 스스로 밝혀지고 있다.⁴³⁾

43) 이인식, 『사람과 컴퓨터』(까치, 1992), pp. 406~09.

반면에 정보화의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인문학의 연구와 교육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측면도 없지 않다. 가령, 각 문화권의 인문학적 자산이 전자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접근 가능해짐에 따라 각 문화권간의 좀더 긴밀한 접촉과 학문적 협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것은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확보한 전지구적 지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일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지식 자원이 전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공유됨에 따라 국가간 혹은 문화권간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구축된 정보 인프라의 적절한 활용은 보편적인 인문적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도 하다. 문제는 정보화가 원천적으로 인문 정신의 적이나 아니냐가 아니라 정보화가 궁극적으로 결과하는 것이 무엇이든 정보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환경을 현단계에서 어떻게 인문학의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할 것인가일 것이다.

4. 결론: 정보 시대 인문학의 한계와 가능성

우리는 위에서 전통 인문학의 이념과 가치를 정보 사회의 논리와 함께 재점검하고, 그것이 직면해온 과학주의적 도전의 역사를 개관함으로써 정보 사회의 인문학이 경험하는 위기의 본질을 그 역사적 선례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정보 사회의 인문학이 꿈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그 현실적인 한계는 무엇인가? 우선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은 인문학자 자신들의 실감대로 학문적인 실천으로서의 전통적 인문학의 장래를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정보 사회라고 해도 철학·사학·문학 등의 기존 학문 분야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전통적 인문학의 연구 목표와 실천 방식을 당장 바꾸거나 포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정보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연구의 환경(전자 도서관으로 대표되는 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과 같은 것)과 도구들(문학 작품의 스타일

분석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이용하여 기존의 인문학 연구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도 있고,⁴⁴⁾ 현재 인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화'의 노력은 이처럼 정보 사회에서 인문적 가치가 가지는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정보화'를 도구적이고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⁴⁵⁾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아무리 인문학 연구의 효율을 높여준다고 해도 정보 사회의 시대 정신, 즉 공리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며, 상업주의적인 원칙들이 그러한 전통적 연구의 결과인 '인문학적 지식'에 대하여 내리는 가치 폄하적 평가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옥스퍼드 대학 철학 교수이자 영국 학술원의 회장이었던 앤소니 케니 Anthony Kenny는 1992년에 행한 한 연설에서, 인문학 연구가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 기술의 양과 수준이 놀랄 정도로 커지고 높아졌음을 지적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인문학 정보화로 인해 현 연구 인력과 연구 내용들 중 많은 부분이 불필요성을 드러내고,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연구의 관심이 문헌 연구 자체보다는 그것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연구 및 개발로 전환될 것이

44) 대학 전산 센터에서 인문 분야 지원 부서가 담당하던 기술 지원 업무를 인문학 내부에서 하나의 독립된 연구 분야로 발전시킨 '인문 전산학 Humanities Computing'이라는 분야가 그러한 낙관론에 기초한 학문적 노력의 대표적 예다. 인문 전산학의 취지와 그 연구 동향에 관해서는 런던 대학 킹스 칼리지 교수로서 인문 전산학의 대표적 주창자인 Willard McCarty의 "We would know how we know what we know: Responding to the computational transformation of the humanities," <http://ilex.cc.kcl.ac.uk/wlm/essays/know/know.html>. 참조.

45) 인문학 정보화의 각 분야별 전망에 관해서는 David S. Miall, ed., *Humanities and The Computer: New Direc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May Katzen, ed., *Scholarship and Technology in the Humanities* (London: Bowker-Saur, 1991) 참조. 인문학 정보화의 최근 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는 Pamela Pavliscak, Seamus Ross, Charles Henry, "Information Technology in Humanities Scholarship: Achievements, Prospects, and Challenges: The United States Focus," *ACLS Occasional Paper*, No. 37, 1997. <http://www.acls.org/op37.htm>; Mary Feeney, Seamus Ross, "Information Technology in Humanities Scholarship: British Achievements, Prospects, and Barriers," *Historical Social Research* 19-1 (1994), pp. 3~59 참조.

며, 결국에는 현재의 인문 분야의 연구 인력이 다른 분야로 방출될 것임을 예측한 바 있다.⁴⁶⁾ 이것은 전통적 의미의 인문학 연구에 대한 정보화의 비판 논리가 인문학자들의 입장에서 옳건 그르건간에 인문학자들의 실업을 포함한 인문학의 축소 조정이 인문학자들이 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직면해야 하는 하나의 필연적 사회 현실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통 인문학의 또 다른 측면, 즉 한 사회의 지도적 인물이 될 수 있는 이상적 인간성의 양성이라는 교육적 본질은 정보화 사회라고 하여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인문학이 그 동안 꾸준히 견지해 온 고전적 문헌의 초월적인 가치나 그것을 육화한 문자의 교화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무런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 특정한 문화적 가치에 입각한 '이상적' 인간성이 계속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대계에서 축적된(그리고 앞으로도 축적될) 높은 수준의 인문학적 사유 방식으로 하이퍼텍스트와 같은 탈문자적 post-print · 다매체적 multimedia 텍스트의 새로운 문화적 활력과 교육적 기능성을 효과적으로 포섭할 수 있다면 인문학이 본래 함양하기로 되어 있는 인간의 종합적이고 포괄적 사고력 자체는 정보 사회의 전문화 경향을 보완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계속해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현대의 인문학이 과거의 학문적 권위에 대한 항수 속에서 소홀히 해온 지도 모르는 이러한 사회 교육의 기능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방식으로 다시 수행할 수 있다면 학문적 제도로서의 인문학에 대한 구조 조정의 압력을 성공적으로 이겨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화 과정의 초반에 서 있는 오늘날의 인문학은 정보화가 표방하는 이른바 '지식 사회'의 근간을 이루며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지속적인 침체 속에서 서서히 죽음에 도달할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6) Anthony Kenny, *Computers and the humanities* (The Ninth British Library Research Lecture) (London: The British Library, 1992), pp. 9~10.

The Humanities in an Information Age : its crisis and potential

Chankil Park

The crisis of the humanities in the modern world has become something of a cliché. The humanities as an instrument for the discovery of truth has always been suspect since its inception, particularly after the science revolution of the 17th century. Is there then anything special about the crisis that the scholars of the humanities have recently experienced? This paper does two things to answer the question; one is to recapitulate the original ideas of the humanities in the Western world along with a very preliminary discussion on their compatibility with the nature of an informatizing society. The other is to survey the history of the controversies between the humanist scholars and scientists since the scientific revolution the most articulate proponent of which was Francis Bacon.

In this paper, I take the position that the present crisis of the humanities is another form of the continuous challenges to the humanities from the camp of natural science in an ongoing battle for the initiative in an academic world rather than a whole new phenomenon

due to the logic of informatization. What is clearly revealed in the survey of the humanities-science controversy is that the humanities has continuously been losing ground in the battle even to the point that what it claims is no more the most legitimate academic discipline for truth but only a subordinate subject which should borrow the rhetoric of its opponent to justify itself.

The crisis of the humanities in an informatizing society, therefore, is serious and fundamental indeed, which, however, does not mean that the humanistic knowledge is found entirely redundant in an information society. An information society with a professionalizing(fragmentizing) tendency demands more than ever the human faculty of a comprehensive intelligence which can be nurtured only by the humanities. The traditional social function of the humanities such as the growth of an ideal citizen might become more relevant in an oncoming information society in that sense only if it manages to make much of the educational potential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rather than being overwhelmed by it. The present crisis of the humanities, therefore, is a serious challenge which threatens its existence, but it also offers a new opportunity for the humanities to reclaim one of its traditional social functions, which is, the growth of a comprehensive human intelligence.